

청렴이 있는 문화이야기

## 조선시대의 법률전문가들

조선에서 법률 전문가라 할 만한 사람들은 하급 관리에 해당하는 율관(律官)과 민간의 소송 조력인으로 활동했던 외지부(外知部)가 있을 것입니다.

### ● 사대부 관리들의 법률 자문역, 율관(律官)



조선시대 법정 풍경을 엿볼 수 있는 김준근의 <법정변송도>. 국립중앙박물관

율관이란 율학(律學), 즉 오늘날의 법학을 공부하여 잡과의 하나인 율과(律科) 시험에 합격한 기술직 관리들을 말합니다. 율관은 승진이 제한되어 종6품 율학교수(律學敎授)까지만 오를 수 있었다 합니다.

율관들은 형조에 예속되어 재판 시 범죄인의 죄목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찾아 주는, 사대부 관리들의 법률 자문역을 맡았습니다.

### ● 조선 변호사, 외지부(外知部)

조선시대에도 각종 소송이 많았습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당시 소송은 모두 문서를 통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소송 당사자는 소장을 작성하여 자신이 사는 고을 관아에 제출해야 했는데, 당시 글을 아는 사람은 전 국민의 5% 밖에 되지 않았다 하니 백성들에겐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래서 오늘날 변호사처럼 백성들을 대신하여 소송을 해 주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이들이 바로 '외지부'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외지부는 조선 조정 입장에서는 눈엣가시였습니다. 그들이 송사에 관여하자 송사가 많아지고 재판이 길어졌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성종 9년(1478) 외지부 활동은 전면 금지되었으나, 그들은 조선 후기까지 은밀히 숨어 활동하며 법과 글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 합니다.



✓ 참고기사 법과 글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되어준 조선변호사 외지부 (국가유산청), 조선시대의 법률 전문가들(대학지성)

상식이 쑥쑥! 선물이 팡팡

## 퀴즈 이벤트



다음 질문의 답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하늘의 기운을 상징하는 '천간(天干)'과 땅의 기운을 나타내는 '지지(地支)'를 조합한 동아시아 전통 시간 체계인 '간지(干支)'에 따르면, **2025년은 무슨 해일까요?**

① 병자년    ② 갑신년    ③ 을사년

※ 힌트 : Monthly청렴 2025년 1월호를 참고하세요~

정답을 보내주신 대상자 중 **3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을 경품으로 보내드립니다. 정답과 주소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응모기간 : 2025. 2. 16.까지

★ 응모방법 : 700spo69a@spo.go.kr

1월호 퀴즈 정답은 ① ○ 입니다. 정답자 중 아래의 1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축!  
당첨

서OO(군산), 김OO(서울북부), 허OO(서울동부), 홍OO(서울남부), 김OO(창원), 이OO(부산고검), 류OO(마산), 문OO(대전), 서OO(울산), 김OO(외부)

## 청렴 한 컷



✓ 참고문헌 제철 행복(김신지)  
✓ 그림출처 게티이미지뱅크

### ♣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

입춘은 24절기 중 한 해를 여는 첫 번째 절기로, 옛사람들은 입춘부터 '진짜 새해'가 시작된다고 보았다 합니다. 그래서 입춘에는 혹시 모를 불운은 막고 행운을 불러오고 싶은 마음에서 비록된 풍속이 많다고 하죠.



보리뿌리점(보리 뿌리를 캐봐서 세 가닥이 넘으면 풍년, 두 가닥은 평년, 한 가닥이면 흉년), 오곡으로 점치기(콩, 메밀, 수수, 팥 등 오곡의 씨앗을 낮은 술에 넣고 볶아서 맨 먼저 술 밖으로 튀어나오는 곡식이 그해 풍작이 될거라 믿음) 등으로 한 해 운을 점쳐보며 회로 애락이 교차했을 옛사람들을 떠올려보면 미소가 지어집니다.

'적선공덕행(積善功德行)'이라 하여 입춘 전날 밤에 남몰래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면 한 해 동안 나쁜 일을 면할 수 있다고 믿어 밤을 틈타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냇물에 징검다리를 놓기도 하고, 아픈 사람 집 앞에 약을 지어다 놓기도 했다 합니다. 요행을 바라기 보다는 삶에 성인을 다하며 좋은 기분을 채기고 다시금 희망을 품었을 옛사람들의 지혜가 새삼 마음을 두드립니다.

청렴, 맑고 깨끗하고 향기롭게